

# 잡아함19 결계경

날짜: 11월 3rd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560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.

“세존이시여, 저를 위해 법의 요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소서.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전일하게 정진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을 것이고, 방일하지 않은 뒤에 ‘선남자(善男子)들이 바른 믿음으로 집에서 집 아닌 데로 출가한 목적대로……(내지)……〈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〉고 스스로 안다’라고 사유하겠습니다.”

그때 세존께서는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.

“훌륭하고, 훌륭하구나. 네가 지금 ‘훌륭하신 세존이시여, 저를 위해 법의 요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소서. 저는 그 법을 들은 뒤에 마땅히 홀로 고요한 곳에서 전일하게 정진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겠습니다.……(내지)……〈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〉고 스스로 알겠습니다’라고 말하였는가?”

“그렇습니다. 세존이시여.”

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.

“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.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. 비구야, 결박[結]12)에 묶인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 버려야 하느니라.

그 법을 끊어 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하리라.”

이때 그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.

“세존이시여, 이미 알았습니다. 선서시여, 이미 알았습니다.”

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.

“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어떻게 자세히 이해하였느냐?”

“세존이시여, 색은 결박에 묶인 법입니다. 이 결박에 묶인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 버려야 합니다. 그 법을 끊어 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입니다.

이와 같이 수 · 상 · 행 · 식도 결박에 묶인 법입니다. 이 결박에 묶인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 버려야 합니다. 그 법을 끊어 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입니다. 이렇게 저는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습니다.”

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.

“훌륭하고, 훌륭하구나. 너는 내가 간략히 말한 법에서 그 뜻을 자세히 이해하였구나. 무슨 까닭인가? 색은 결박에 묶인 법이다. 따라서 이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 버려야 한다. 그 법을 끊어 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이기 때문이다. 이와 같이 수 · 상 · 행 · 식도 결박에 묶인 법이다. 따라서 이 법은 마땅히 빨리 끊어 버려야 한다. 이 법을 끊어 버리고 나면 바른 이치가 넉넉하여 오랜 세월 동안 안락할 것이기 때문이다.”

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. 그는 홀로 고요한 곳에서 전일하게 정진 사유하면서 방일하지 않았고……(내지)……마음이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다.

---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